

## 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 궁극의 지혜, 눈 먼 자의 지혜

Faust—주며. 60년을 쏟아부어 쓴 심각한 대화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왜 하필 '주며'일까. 더구나 그는, 그야말로 '주며'권이 횡행하던 어두운 시대, 중세에 4대 학문인 법학, 의학, 철학, 신학을 다 섭렵하고도 회의로 독배를 드는 큰 지식인으로 등장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캐릭터 자체는 인형극이나 민중본, 혹은 유랑극단의 공연으로 오래 있어온 이야기에서 벌려왔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속 파우스트는 기독교 일색의 사회에서 불경하게 영혼을 팔아서 24년간 지상에서 온갖 복락을 다 누리고, 시한이 차자 마땅하게끔 지옥에 떨어졌다는 문제적 인간이다.(기독교권의 권선징악의 이야기인 것.)

그 단순한 이야기를 괴테는 장려한 휴먼드라마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악마와의 계약에서 시한을 제거해 놓고 60년을 쏟음으로써이다. '24년간 온갖 복락을 누리고'에서 24년을 빼버리고 내기로 만들었다. 파우스트가 악마가 제공하는 향락에 마침내 만족하여,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도 만족하여, 그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면 그때 영혼을 가져가기로 합으로써 말이다.(그렇게 지옥에 떨어진 파우스트는 악마의 종살이를 해야 한다.)

계약을 내기로 바꾼 그 하나의 전환이 '파우스트'라는 근대인의 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된다. "세계를 그 가장 내면에서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별을, 땅에서는 모든 최고의 페락을" 다 원하는 인간, 파우스트는 끝없이 욕망에 추동될 뿐 좀처럼 계약의 말을 입밖으로 내지 않는다. 그리하여 작품 '파우스트'는 3000년의 시공을 누비는 이야기가 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1만 2111행의 시구가 된다.

평생쓰고도 모자라 죽음 직전까지 교정을 거듭한 원고를 "이해받지 못하리라"고 괴테는 봉인해서 넣고 죽지만, 사후 출간된 '파우스트'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더더욱 시사성이 높아지는 작품이 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망에 휘둘리며 사는가. 설명 모든 걸 다 바라도 되는 기회가 주어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단 한 번 밖에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같은 말을 쉽사리 입밖에 내기에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하여 이야기는 길고 길어지고 파우스트의 체험은 천지간을 아우르게 된 것이다.

그 3000년을 뒤따라 가보기는 읽는 이도 숨이 가쁘지만 그런 '내달립'도 언젠가는 멈추어야 하는 법. 그 멈춤의 설정 또한 신묘하다. 이제 모든 것을 가져서 그의 집에는 악귀조차 범접을 못하는 100세의 파우스트 집 열쇠 구멍으로 스며드는 것이 있다. 근심이다. 근심이 밀한다. "인간은 평생토록 맹목이니" 즉 눈 뜨고 눈멀어 사니, 이제 "종국에 너 눈 멀라"며 근심이 입김을

불어 파우스트는 장님이 된다. 평생토록 멀쩡히 눈 뜨고 눈 먼 사람처럼 내달려온 파우스트에게서 눈이 멀자 비로소 마음의 눈이, 심안이 떠진다.

해안을 메우는 개간의 삽질 소리를 들으며 (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 소리를 들으며), 남녀노소가 새로 생길 낙토며 거기 모여 살 공동체를 그려보며 파우스트는 그 계약을 입 밖에 낸다.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드디어 그 말이 나왔으므로 메피스토펠레스는 괴재를 부르지만, 파우스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신 어딘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난다. 계약의 말이 나오긴 했어도 그건 악마가 제공한 것이 흡족하여 나온 말이 아니다. 그 말이 나온 건, 참으로 오래 하겁지겁 욕망을 뒤쫓으며 방향하던 한 인간이 마침내—눈 멀었기에—밝아진 눈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깨치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주며'이란다. 뜻을 떠올릴 때마다 좀 우습고 아이러니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세계의 근본을 알고 싶어하는 도저한 열정, 맹목적 내달립이었던 삶, 그러나 우격다짐으로 내닫기만 했던 그에게서 마침내 문득 밝아오는 지혜—. 그런 모든 치열함이 이 가운데 아이러니 속에 포섭되는 것도 같아 재미있다. 괴테 자신은 대작 파우스트를 "진지한 능담"이라 불렀다. 진지함의 무게를 조금 덜어 볼 생각이 엘었을 게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 의료칼럼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광주시의사회 총무부회장

## 어쩌다, 의료에 '스토브리그'가

의 질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결국 환자의 안전 문제로 돌아온다. 의료를 선거용 구호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교수 확보를 위해 조건을 바꾸고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의료는 결국 사람으로 유지된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의 대학과 병원은 버티고 있다. 아니, 버티는 적하고 있을 뿐이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없는 시스템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우리 지역의 응급실 미수용, 응급실 빽빽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응급 처치 이후에 필수적인 전문과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 의학과 연구 인력의 부족 역시 마찬가지다. 의사들의 잘 못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처음에는 재정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의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는 신뢰가 중요하다. 행정과 의사,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는 멀어지다가 지금은 힘해졌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명분이 아니다. 병원에 의사가 몇 명 있는지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더 이상 미를 시간은 없다.

난치 질환이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어느 날 피고 된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던 시간은 기록을 정리하고 소송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과도한 형사 책임과 민사 위험은 의료 현장을 방어적 진료로 몰아간다. 위험한 환자는 피하고 고난도 진료는 기피

하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

의사가 떠나는 이유는 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 결과마저 형벌과 낙인으로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그 자리를 지킬겠는가. 짚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장이나 대학 총장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상황이라면 지자체장이 의대 생과 짚은 의사들을 직접 만나 타운홀 미팅이라도 열어야 한다.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지역을 떠나려 하는지 직접 듣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짚은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떠나는지를 묻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짚은 의사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지역의료를 이끌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짚은 의사들을 설득하고 함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 역시 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다.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미충족 의료를 맡을 후배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필요한 의사를 빨리 외국, 타 지역에서 모시고 와라. 그리고 짚은 의사들을 시민의 성금으로 외국으로 보내 공부시키고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외부 스트레스에서 보호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며지 않아 광주 시민은 KTX나 SRT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치료를 받으려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 위험한 로보타(Robota)가 온다

있다. 극 중 파브리(엔지니어)는 헬레나(로봇을 동정하는 인물)에게 로봇을 만드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로봇 하나는 인간 노동자 두 사람 반의 땀을 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기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미 100여년 전의 문학 작품 속에 예견되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로봇의 이미지는 영화 '아이 로봇'의 로봇 군단이나 '터미네이터'의 T시리즈 등 인간과 흡사한 이족보행 기계 따위이다. 하지만 현실 속의 로봇은 훨씬 더 온밀하고 다양하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 공장의 거대한 로봇팔, 안방을 누비는 로봇청소기, 주머니 속의 인공지능 시리(Siri),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훑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로봇 등이다. 차페크의 작품 속로봇처럼 인간과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로봇의 사전적 정의인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특정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라인에 최첨단 로봇을 전면 배치하는 현상은 프랑스의 전자 음악 드오 다프트 펑크의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라는 제목의 곡과 묘하게 교차되는 부분이다. 로봇은 인간이 기피하는 험한 작업(Harder)을 묵묵히 수행하며, 인간의 속도를 넘어서는 정밀함(Better)과 24시간 쉬지 않는 속도(Faster), 그리고 지치지 않는 물리적 힘(Stronger)을 제공한다.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라디아트 운동이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저항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로봇 투입은 인구 절벽과 노동 인력 감소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고에 대응하는 전화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인간의 근육을 대체한 로봇은 이제 생산라인의 단순 노동자가 아닌 최적의 효율을 뽑아내는 '지능형 파트너'로 군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이제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차페크의 소설 속로봇은 결국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이러한 희곡의 서사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 뒤에 숨은 인류의 근원적인 공포를 대변한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노동 현장에서 인간을 배제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21세기 라디아트 운동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로봇은 인간을 모티브로 탄생했으며 인간의 지시에 따라 동작하는 도구다. 생산라인이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로봇이 근육을 대신한다면 인간은 창의성과 공감, 그리고 윤리적 판단이라는 고차원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로봇은 더 이상 SF 영화 속의 환상이 아니다. 100년 전 차페크의 통찰이 오늘날 생산 라인에서 실현되고 있듯, 우리는 이제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의 문법을 익혀야 한다.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기계의 논리 속에 사람다움이라는 따뜻한 가치를 담아내는 일. 그것이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하는 서사일지도 모른다.

## 社說

## 국립의대·지역의사제로 전남 의료공백 해소

정부가 향후 5년 간 의사 수를 3342명 증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제7차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인데 올해 치러지는 2027년 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서울 소재 의대 8곳을 제외한 전국 의대 32곳이 증원 대상이다.

지역에선 전남권 국립 의대 개교 시점을 가능하면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의사 수 증원보다 반기운 것은 전남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이 정원 100명에 2030년 개교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설립하게 되는 전남권 국립 의대는 당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지역에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3년 늦어지게 됐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완결되지 않았고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점 예하게 대립하면서 의대 개교를 위해 필요로 한 절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대목이다.

전남권 국립 의대를 목표대로 둘지 순천대에 둘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학 본부를 두지 않는 곳에 의대를 배치할 가능

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과정에서 결정할 일인 만큼 두 대학 통합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에선 전남권 국립 의대 개교 시점을 가능하면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의대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에 배정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우리 지역에선 2027학년도 전남대와 조선대에 50명이 배정됐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2명씩이 지역의사제로 배정됐다.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배출된 의사는 1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만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전남권 국립 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의료 서비스 질이 조금이나마 개선 될 것이라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 비용 절감 위해 광주역 열차 운행 멈춰서야

지난 여름 광주 북구에서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안동의 신안철교가 지목된 적이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근 서방천으로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안철교의 교각 사이가 너무 좁아 물 흐름을 막은 것이 인명피해 까지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철도공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철교를 재가설하기로 했는데 공사 기간 동안 광주역으로 들어오는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은 건교부에 네 가지 방안 가운데 이 안을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제안했는데 비용 절감만 고려했지 주민들의 불편과 상관 침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다.

공단은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비용을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322억원까지 절약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사 기간만 2년이고 광주역 이용객만 하루 1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광주역에 들어오는 열차는 하루 평균 서울 용산역 왕복 10편과 송정역 왕복 2편으로 적지 않다. 열차가 끊기면 주변 상권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단 측이 제시한 네 가지 안에는 임시선을 활용해 신안철교를 개량하는 안과 열차 운행을 유지하면서 개량하는 안도 있다. 이런데도 비용 절감만 고려했지 주민들의 불편과 상관 침체는 주변 상권 침체를 나몰라라 한다면 공기업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공단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우회 선로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 無等鼓

'파우스트' 등 괴테의 작품을 비롯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좋은 문장들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명언의 보물창고'라 할 만한데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연간 1000권을 읽는 독서광인 저자의 이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저자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식사 중 티백에 적힌 명언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했다니 이 역시 흥미롭다.

책에 따르면 몽테뉴가 "만약 에라스무스를 만나면 그가 하인에게 하는 말을 조리 격언이나 경구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정도로 네덜란드 철학자 에라스무스는 명문장의

대가였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주장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킬겠소'라는 별데르의 말(이 역시 별데르의 전기작가가 지어냈다는 설도 있다)은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경청하지 않는 우리 시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옛날에는 명언을 말하면 그 말의 힘을 습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말의 힘이 완벽히 작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에 새길 좌표 하나쯤은 가져도 좋은 일이다.

/김민은 여론매체부장 mekim@

## 명언 수집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문화사 220-0541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문화사 220-054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문화사 220-054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문화사 220-0541